

땅끝순례문학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우선 지난해 개설돼 큰 호응을

‘자서전 쓰기반’ 60세 이상 자신 삶 성찰 ‘문학관 전시작가 연구모임’ 올해 첫 운영

받았던 ‘자서전 쓰기반’이 올해도 운영된다.

자서전 쓰기반은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강 후에는 수강생의 글을 묶은 문집도 발간한다. 오는 9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백련재 문학의집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

해남 출신 대표 문인으로 땅끝

순례문학관 전시 작가인 이동주, 박성룡, 김남주, 고정희 시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문학관 전시작가 연구모임’은 올해 처음 운영된다.

각 작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황지우, 노창수, 전동진, 김경운 등 국내 유수의 작가가 회차별 강사로 나서 고품격 강의를 진행한다. 작가의 생각을 둘러보는 문학답사도 포함돼 시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관 전시작가 연구모임은 오는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전화 접수(061-530-5127/5132)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강생 전원 발열 점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문학이 지닌 치유의 힘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며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흥 안양면지사협 한여름 크리스마스 건강 살핌 서비스 운영

장흥군 안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선옥채, 공공위원장 송남신)은 11일 여름 건강 살핌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사업 기탁식 및 협약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안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안양면 번영회와 새마을부녀회가 함께했다.

안양면번영회(회장 유재명)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신자)는 여름내 코로나19로 인한 여름 휴가 및 모임이 모두 어려운 시기임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위문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각각 150만원,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안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맞춤형복지 시책으로 추진하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사업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관내 만9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하여 어른 공경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어르신 57명을 직접 찾아 위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남신 안양면장은 “성금을 기탁해 준 사회단체에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며,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장마 이후 병해충 방제지도 총력

농업기술센터 잎집무늬마름병·도열병·흰잎마름병 등

강진군이 장마 이후 벼 출수 전후를 중심으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방제지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흑명나방, 먹노린재 등 병해충 발생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군 농업기술센터의 최근 예찰 결과 장마 종료시점 전후로

지역별로 흰잎마름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벼 병해충 방제 구입권을 조기 배부하고 벼 병해충 기본방제 기간을 전년보다 9일 빠른 이번 달 14일까지로 설정했다. 장마 종료 직후 읍면별 마을 특별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기술지원 등 병해충 방제를 지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조도면, 건강한 여름나기 선풍기 나눔

진도군 조도면과 진도노인복지관이 최근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너도나도 행복합니다 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계층에게 건강한 여름나기 선풍기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선풍기는 내이버해피빈 모금을 통해 41대 지원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군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섬이 많은 조도면 외부 지역 어르신들 가정에는 오승민 조도면장이 직접 선풍기 17대를 전달했다.

진도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조도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각종 나눔 사업 등 지속적인 섬 복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조도면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장마철과 태풍 등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복절 맞아 8.15km 맨몸바다수영으로 태극기 펼쳐

완도해경, 민·관 합동 릴레이 바다수영 훈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11일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상에서 민·관이 합동하여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와 맨몸수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완도해경 구조대원과 강진·장흥 구조협회 구조대원, 완도해병전우회 등 약 61명 참석하여 대형 태극기(가로 8m, 세로 6m)를 해상에 펼치고 안전부이에 소형 태극기(가로 15

cm, 세로 40cm)를 부착하여 바다수영에 나섰고 고속단정과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이루어 졌다.

또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완도 명사십리 해상 8.15km를 맨몸으로 민·관이 합동 릴레이 바다수영을 하여 완주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수영거리를 재는 장비 이용, 인종상을 남겼다.

박제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광복절 75주년 기념행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순국선열의 정신과 광복의 의미가 국민에게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운영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안전한 관공서 출입환경 조성

장흥군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 체온측정기는 사회적거리두기의 실천에 따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공서 출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체온측정기는 군청 입구를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터미널 등 군민의 출입이 잦은 군산하기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체온측정기는 측정기 앞에 서면 안면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체온이 측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인식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음성멘트 안내가 나오는 등 마스크 착용 여부 식별도 가능하다.

군은 안면인식 기록이 자동 저장되어 출입 인원 기록관리 및 감염자 등 경로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체온측정기 설치로 관공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천지 농·특산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